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유아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 분석

김소영¹, 김성혁¹, 안미영^{2*}

¹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²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on their Children's Adjustment to Educational Institutions

So-Young Kim¹, Seong-Hyuk Kim¹, Mi-Young An^{2*}

¹Department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²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eju Ha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A시 소재 7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4,5세 유아 162명의 어머니와 담임교사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에 대한 총 73개 문항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용)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교육기관적응은 전체 및 모든 하부요인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교육기관적응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력이 서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특히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과 강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나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력 증진에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끼친다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on their children's adjustment to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162 young children's mothers and teachers from seven kindergartens in A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 to June 30, 2016.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73 items about maternal self-efficacy, children's ego-resilience and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descriptive method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WIN 22.0 version.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aternal self-efficacy was weak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activeness of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Second, children's ego-resilience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Third,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on their children's adjustment to educational institutions, maternal self-efficacy was weak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ildren's ego-resilience and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while children's ego-resilience was strong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ternal self-efficacy and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finding of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on their children's adjustment to educational institutions indicates that children's ego-resilience is a reliable predictor of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These study results imply that children's ego-resilience is strongly influenced by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Keywords : Children's Adjustment to Educational Institutions, Children's Ego-Resilience, Maternal Self-Efficacy, preschool adaptation, Young Children

*Corresponding Author : Mi-Young An(Cheju Halla Univ.)

Tel: +82-64-741-6518 email: myahn@chu.ac.kr

Received July 20, 2016

Revised (1st August 1, 2016, 2nd August 10, 2016)

Accepted August 11, 2016

Published August 31, 2016

1. 서론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는 기혼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총 경제활동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2010년 49.4%에서 2015년 51.8%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직업 활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아들이 유치원을 비롯한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에 장시간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남희[2] 보고에 의하면 2014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만 5세 이하 영유아는 약 78%로 나타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또한 교사와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 떨어져 처음으로 접하는 환경인 유아교육기관 내에 모든 환경과 또래 및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사회화 과정을 배우고 적응하게 된다. 영유아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또래나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유아교육기관의 일정에 순응하고, 주도적이며 독립적인 활동으로 자존감과 공간을 또래들과 공유하며 잘 어울림으로써 적응해 나가게 된다. 유아교육기관에 잘 순응하며 적응하는 유아들의 경우 자존감, 자아개념, 자기조절능력, 심리적 건강성, 대인관계, 또래 유능성, 언어 및 인지능력 등의 면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아들에 비해 더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8]. 반면 유아교육기관에 잘 순응하지 못하는 경우 비행 또는 문제행동 등 초등학교 이후의 부적응 행동의 선행요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9].

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개인변인으로 타고난 기질 유형별 기준에 따라서 유아교육기관 적응도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영유아의 연령별 차이를 보여 영유아의 연령이 높음에 따라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 남아보다 여아가 더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3, 10-14]. 이 외에 유아의 개인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잘 유도하여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5]. 영유아 교육기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또 다른 변인으로 가정 환경변인을 들 수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행

동, 양육효능감, 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가 일관성 있고 긍정적이며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영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압적일수록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이 영유아의 적응에도 연관성이 있으며, 가정의 물리적 환경으로 부모의 직업, 학력, 경제적 수준 등 가정환경 변인의 영향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12, 17-20].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의 기본개념은 Bandura[21]에 의해 도출된 자아효능감(self-efficacy)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양육의 차원에서 자아효능감을 적용하여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22-23]. 또한 양육효능감이란 자녀의 발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부모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갖는 기대 정도라 하였다[24]. 특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유아의 인지능력과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 등 영유아 발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한 영유아의 교육기관적응에 있어서 작-간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25-27, 19]. 부모의 낮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 능력에 대한 좌절감으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하고[28-29], 무기력하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22].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관리하고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각하는 것으로 자녀양육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30].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녀 양육행동에 적극적이며 자녀의 인지, 사회적 정서, 신체 등의 발달과 관련된 양육행동을 강조하며 통제적 양육행동을 덜 하고 자율을 격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에게서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나타내며 이어 자녀의 효능감을 발달시키는 데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31-3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학습행동, 영아의 인지발달, 유아의 사회적 능력, 유아의 탄력성, 또래 유능성,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가정환경자극의 질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33-41].

영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유아 개인의 심리적 요인 또한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최근 심리학적으로 개인이 스트

레스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자아탄력성을 언급하고 있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란 용어는 Rutter[42]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환경적 변화에 따른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여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아동들의 특성을 의미한다. 즉, 자아탄력성은 자아통제를 적절히 조절하여 제약적 환경과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는 개인이 가진 역동적인 능력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정서적 상황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43-47].

영유아기에 있어 가정을 벗어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아직은 미숙한 유아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 영유아의 부적응은 유아의 발달과정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더불어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문제 행동 발생과 심리적 부적응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48-50]. 그러므로 영유아의 유아기관 적응은 미래의 성공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유아들의 유아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유아의 경우 탄력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독립성이 강하고 또래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스트레스나 갈등적인 상황에서도 사회적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갈등과 역경을 잘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순조롭게 대처하며 환경을 자신들의 욕구에 맞도록 변화시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유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51-52, 15]. 이러한 관점에서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유아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필요한 환경적응 및 사회적 기술, 문제해결능력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사 관련 변인 분석연구[53-54]와 어머니 관련 변인 분석연구[55-56, 50, 15]가 대부분이며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그러므로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위한 프

로그래밍 개발 및 교육방법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자녀에게 상호작용적이며 온정적인 태도와 더불어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유아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 적응 요소인 인지발달, 또래 유능성, 놀이성 및 사회적 능력, 학습 행동 등 영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어 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의 적응 관련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영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관계가 있는가?
- 둘째,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영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관계가 있는가?
-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기관적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A시에 위치한 7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 4, 5세 유아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게 설문지 200부를 배포하여 자가 기입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66부이었고 이중 응답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4부를 제외하고 162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 ±SD	Range	
Child	Gender	Male	81(50.0)		
		Female	81(50.0)		
	Age (year)	3	48(29.6)	4.1±.81	3 ~ 5
		4	53(32.7)		
		5	61(37.7)		
Birth order	Only child	15(9.3)			
	First	65(40.1)			
	Second	56(34.6)			
	≥ Third	26(16.0)			
Age (year)	<30	6(3.7)	36.4±4.16	24 ~ 52	
	30~34	47(29.0)			
	35~39	76(46.9)			
	≥40	33(20.4)			
Education	≤High school	40(24.7)			
	3-yr college	36(22.2)			
	Bachelor degree	73(45.1)			
	≥Master degree	13(8.0)			
Occupation	Yes	93(57.4)			
	No	69(42.6)			
Monthly Income (million won)	<300	11(6.8)			
	300~400	34(21.0)			
	400~500	34(21.0)			
	≥500	57(35.2)			
	No answer	26(16.0)			
Number of children	1	28(17.3)	2.1±.76	1 ~ 5	
	2	100(61.7)			
	≥3	34(21.0)			
Age (year)			29.8±5.13		
Total Career (year)	Female	31(100.0)			
	<5	12(38.7)	74.5±54.01 (m)	4 ~ 222 (m)	
	5~10	15(48.4)			
≥10	4(12.9)				
Education	3-yr college	22(71.0)			
	Bachelor degree	9(29.0)			
Certificate	Kindergarten (Grade II)	14(45.2)			
	Kindergarten (Grade I)	3(9.7)			
	Child care (Grade II)	3(9.7)			
	Child care (Grade I)	11(35.5)			

2.1.2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의 설문지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에 대한 총 73개 문항으로 아래와 같다.

- 양육 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 중 영역별 양육효능감 5가지 요인 22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한국판 양육감 척도

(K-EGSCP)는 성지현·백지희[57]가 타당성을 검증한 도구로 영역별 양육효능감 5가지 하위요인 훈육, 놀이, 애정, 일상체계조직, 놀이와 관련 인지구조 2가지 하위요인 어머니의 책임, 결과통제의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최고 6점(매우 그렇다)에서 최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자아탄력성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LeBuffe·Naglieri[58]이 개발한 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DECA)를 김보민[59]이 수정,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담임교사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총 3개 요인(애착, 주도성, 자기통제) 25문항으로 최고 5점(매우 자주 하였다)에서 최저 1점(전혀 하지 않았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 유아교육기관적응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은 박영아·엄서영[60]이 개발한 도구로 담임교사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총 5개 요인(의사소통, 친사회성, 생활습관, 안정감, 적극성) 26문항으로 최고 5점(매우 그렇다)에서 최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교육기관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2.1.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s용)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을 위해서 빈도분석, 기술통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론

3.1 일반적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 참여 대상인 유아의 평균연령은 4.1세로 남아와 여

아의 비율이 각각 50.0%이었다. 연령군으로는 만 5세 유아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순위로는 첫째인 유아가 40.1%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6.4세로 35~39세의 연령군이 46.9%로 가장 많았고 평균 자녀수는 2.1명이었다. 학력은 대학교졸업자가 45.1%로 가장 많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57.4%이었다. 교사의 평균연령은 29.8세, 평균경력은 6년 2개월 이었으며, 학력은 전문대졸업자가 71.0%,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소지가 45.2%이었다.

3.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의 경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6점 만점에 평균평점 4.4점 (SD=.61),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7점(SD=.56),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8점(SD=.58)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에서는 애정의 평균평점이 4.7점 (SD=.76)으로 가장 높았고,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에서는 애착의 평균평점이 3.9점(SD=.50)으로 가장 높았다. 유아 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 평균평점은 의사소통 3.9점 (SD=.65), 생활습관 3.9점(SD=.78), 안정감 3.9점 (SD=.69), 적극성 3.9점(SD=.68)점으로 동일하게 높았고 친사회성 평균평점이 3.6점(SD=.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2>.

Table 2. Maternal Self-efficacy, Children's Resilience and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N=162)

Items	Categories	M±SD	Range
Maternal Self-efficacy	Discipline	4.3±.81	1.8~6.0
	Play	4.2±.99	1.0~6.0
	Attachment	4.7±.76	1.0~6.0
	Daily living	4.4±.95	1.0~6.0
	Education	4.5±.92	1.7~6.0
	Total	4.4±.61	2.8~5.8
Children's Resilience	Attachment	3.9±.50	2.6~5.0
	Self-Direction	3.7±.68	1.7~5.0
	Self-Control	3.6±.71	1.6~5.0
	Total	3.7±.56	2.2~5.0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Communication	3.9±.65	2.0~5.0
	Pro-social behavior	3.6±.75	1.3~5.0
	Lifestyle	3.9±.78	1.3~5.0
	Stability	3.9±.69	2.3~5.0
	Activeness	3.9±.68	1.7~5.0
	Total	3.8±.58	2.0~5.0

3.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r=.162$, $p<.01$)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훈육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 하위요인 중 친사회성($r=.203$, $p<.01$), 생활습관($r=.185$, $p<.05$), 안정감($r=.197$, $p<.05$)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머니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애착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N=162)

Categories	Maternal Self-efficacy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Discipline	Play	Attachment	Daily living	Education	Total	Communication	Pro-social behavior	Lifestyle	Stability	Activeness	Total
Maternal Self-efficacy	Discipline	1										
	Play	.267**	1									
	Attachment	.246**	.640**	1								
	Daily living	.327**	.237**	.300**	1							
	Education	.385**	.420**	.314**	.322**	1						
	Total	.628**	.753**	.708**	.645**	.715**	1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Communication	.129	.079	.210**	.096	.065	.161*	1				
	Pro-social behavior	.203**	.050	.166*	.052	.058	.144	.678**	1			
	Lifestyle	.185*	.114	.107	.119	-.014	.145	.651**	.683**	1		
	Stability	.197*	.022	.125	.086	.001	.117	.611**	.646**	.662**	1	
	Activeness	.110	.098	.166*	-.049	.031	.096	.527**	.503**	.399**	.503**	1
	Total	.204**	.089	.187*	.076	.033	.162*	.841**	.864**	.841**	.836**	.707**

* $p<.05$, ** $p<.01$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Resilience and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N=162)

Categories	Children's Resilience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Attachment	Self-Direction	Self-Control	total	Communication	Pro-social behavior	Lifestyle	Stability	Activeness	Total
Children's Resilience	Attachment	1								
	Self-Direction	.638**	1							
	Self-Control	.624**	.818**	1						
	Total	.811**	.930**	.929**	1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Communication	.650**	.730**	.706**	.779**	1				
	Pro-social havior	.573**	.786**	.881**	.852**	.678**	1			
	Lifestyle	.445**	.560**	.623**	.616**	.651**	.683**	1		
	Stability	.502**	.552**	.637**	.653**	.611**	.646**	.662**	1	
	Activeness	.671**	.505**	.507**	.612**	.527**	.503**	.399**	.503**	1
	Total	.688**	.765**	.822**	.853**	.841**	.864**	.841**	.836**	.707**

*p<.05, **p<.01

Table 5. Relationship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ren's Resilience and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N=162)

Items	Maternal Self-efficacy	Children's Resilience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Maternal Self-efficacy	1		
Children's Resilience	.193*	1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162*	.853**	1

*p<.05, **p<.01

($r=.210, p<.01$), 친사회성($r=.166, p<.05$), 적극성($r=.166, p<.05$)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3>.

타났다.

3.4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교육기관적응은 전체($r=.853, p<.01$) 및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하위요인별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들은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애착은 교육 기관적응 하위요인 중 적극성($r=.671, p<.01$),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주도성은 교육기관 적응 하위요인 중친사회성($r=.786, p<.01$),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자기 통제는 교육 기관적응 하위요인 중 친사회성($r=.881, p<.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표 4>.

3.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기관적응과의 관계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자아탄력성($r=.193, p<.05$), 유아의 교육기관적응($r=.162, p<.05$)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r=.853, p<.01$)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와 교사들에게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련 중요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찾아 분석하여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유아의 긍정적 유아교육기관적응과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아교육과 부모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인 훈육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 하위요인인 친사회성, 생활습관, 안정감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머니 양육효능감 하위요인인 애착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친사회성, 적극성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위의 결과는 정아름 [6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은 직접·간접적으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3-41]. 특히 박인숙[19]의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긍정성·또래관계적응·하루일과적응에서는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점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친사회성, 긍정성 영역에서 매우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Shaw 등[9]의 선행 연구와도 유사하다.

둘째,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유아교육기관적응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탄력성 각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도성, 자기통제력, 애착과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하위영역 중 사회정서적응, 또래적응, 그리고 일과적응 등의 모든 영역에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주도성을 갖고 타인에 요구에 응하는 독립적인 사고와 정도, 유아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단어를 사용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자기 통제적 능력, 그리고 유아의 삶에서 의미 있는 성인, 즉 부모, 가족, 교사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정서 공유 및 공감하고 또래와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하루하루의 일과를 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홍지명[62]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는 유아들이 그렇지 못한 유아보다 자존감, 자아개념, 자기조절능력, 또래 유능성 등이 더 우수하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3-8]와도 일치한다. 또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는 유아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를 잘 한다는 Rutter[4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이용주·오선영[63]의 연구결과인, 유아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서 및 심리사회적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스트레스에 잘 적응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같다[43-47].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유아가 높은 애착을 형성할수록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나타내며, 주도적인 성격을 가진 유아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기통제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친사회적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기관적응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그

중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교육기관적응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유아의 교육기관적응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유아 적응에 영향이 더 크다는 박인숙[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 관련 변인 보다는 유아 본인 관련 변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측변인이라 할 수 있다[25-27, 19].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에 소재한 7개의 영유아 교육기관에 재원중인 유아들의 어머니와 교사들로 지역적 편중이 커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표집인원을 더 늘리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의 영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유아들의 어머니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는 없었는데, 이는 Luster와 Kain 등[25-27, 19]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영유아의 교육기관적응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있다고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추후 매개검증을 통한 두 변수간의 관계를 매개효과나 잠정요인분석 등을 통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에서는 애정이, 유아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에서는 애착이,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에서는 의사소통, 생활습관, 안정감과 적극성이 높은 표준 평점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잠재적 요인이나 매개효과 분석 등의 후속연구를 통해 위의 관계와

영향요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유아교육기
관적응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 이는 유아
의 수월한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위해 유아의 자아탄력성
을 향상시키는 유아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와 유아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KOSIS), 2 016 [cited 2016 Jun 20],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http://kosis.kr/customStatis/customStatis_04List.jsp\)](http://kostat.go.kr(http://kosis.kr/customStatis/customStatis_04List.jsp))
- [2] N. H. Woo, "Nursery of today, Children of Tomorrow. -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the Korean nursery - Keynote Lecture",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pp. 3-7, 2015.
- [3] Y. W. Kim, A Study on Variables Related to Young Children's Adaptation to Childcare Centers : Focused on Personal and Home Environmental Variable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5
- [4] J. S. Song, and H. K. Kwon, "Adjustment in Early Childhood institute to Child's Social Ability and Behavior Problem",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8, no. 3, pp. 207-225, 2003.
- [5] S. J. Seo, and J. Y. Ha, "The Effect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Maternal Variables on Children's Maladjustment Capacit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6, no. 1, pp. 73-86, 2008.
- [6] C. C. Raver, and E. F. Zigler,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 12, pp. 363-385, 1997.
DOI: [http://dx.doi.org/10.1016/S0885-2006\(97\)90017-X](http://dx.doi.org/10.1016/S0885-2006(97)90017-X)
- [7] C. S. Rogers, and J. K. Sawyers, "Play in the lives of children", Washington DC: NAEYC, 1988.
- [8] D. R. Shaffer,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Belmont, CA: Wadsworth Tomson Learning, 2000.
- [9] D. S. Shaw, K. Keenan, and J. L. Vondra, "Developmental precursors of externalizing behavior. Age 1 to 3"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0, pp. 355-364, 1994.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30.3.355>
- [10] Y. S. Lee, A study of children's adjustment behaviors : children's gender, temperament, child care experiences, and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 Jong University, 2005.
- [11] M. J. Lim, and K. S. Choi, "A Study of Children's Adjustment to Child-Care Centers Based upon gender age, temperament and home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3, no. 1, pp. 189-207, 2003.
- [12] J. S. Song, "A Study on Variables the Related to Children's Adjustment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1, no. 3, pp. 167-189, 2004.
- [13] H. A. Klein,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adjustment to kindergarten and Head Start",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 112, pp. 259-68, 1982.
DOI: <http://dx.doi.org/10.1080/00223980.1982.9915383>
- [14] N. Parker-Cohen, and R. Bell,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 3, pp. 179-192, 1988.
DOI: [http://dx.doi.org/10.1016/0885-2006\(88\)90021-X](http://dx.doi.org/10.1016/0885-2006(88)90021-X)
- [15] K. S. Chung, M. J. Kim, and E. S. Ha,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Happiness, Parenting Efficacy and Ego-Resiliency of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7, no. 1, pp. 73-97, 2012.
- [16] Q. Jim, H. R. Lee, and C. H. Chung, "Relationships among Parents' 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s,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on Children' Pre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24, no. 2, pp. 123-144, 2015.
- [17] Y. S. Lee, and S. J. Seo, "Preschoolers' Adjustment Behavior - Focusing on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4, no. 5, pp. 143-155, 2006.
- [18] J. S. Lee, Y. K. Moon, and H. I. Choi, "Impact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on School Adjustment in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 ego-resilienc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21, no. 2, pp. 233-246, 2012.
- [19] I. S. Park, "The Mediating Role of Negative Emotionality on Preschool Adjustment and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4, no. 4, pp. 195-213, 2014.
- [20] Y. S. Kwon, The Effects of Mothers Self-Concept, Child-Rearing Attitude on Young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e Myung University, 1995.
- [21]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1997.
- [22] P. K. Coleman, & K. H. Karraker,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vol. 18, no. 1, pp. 47-85, 1997.
DOI: <http://dx.doi.org/10.1006/drev.1997.0448>
- [23] H. S. Choe,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02.
- [24] T. Luster, and E. L. Kai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vol. 29, pp. 301-311, 1987.
DOI: <http://dx.doi.org/10.1080/0300443870290306>
- [25] H. S. Choe, "Parenti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ren's Temperament Among Korean

- Boy's and Girl's Mo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6, no. 1, pp. 317-328, 2005.
- [26] C. Y. Cho, and Y. H. Kwon, "The Role of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and Verbal Ability on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Rejective Parenting and Child's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4, no. 1, pp. 51-72, 2014.
- [27] I. S. Park, "The Analysis on The Causal Model Between Adjustment Temperament, Playfulness of Young Children, and Mother's Child-Rear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3, no. 3, pp. 283-302, 2013.
- [28] S. O. Jang, Y. M. Kim, "Effects of Maternal Rearing Stress and Burnout on their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s", *Research of Waldorf Education*, vol. 3, no. 1, pp. 91-111, 2011.
- [29] D. M. Teti, & D. M. Gelfand,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vol. 62, pp. 918-929, 1991.
DOI: <http://dx.doi.org/10.2307/1131143>
- [30] L. E. Dumka, H. D. Stoerzinger, K. M. Jackson, and M. W. Roosa,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vol. 45, pp. 216-222, 1996.
DOI: <http://dx.doi.org/10.2307/585293>
- [31] H. J. Woo, and S. Lee, "Investigation on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Self -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15, no. 1, pp. 71-90, 1994.
- [32] I. K.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ontingent shift behavior and the variables: Mother's perception, parenting self-efficacy, children's cognitive abilities, and mother-child mutual affec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4.
- [33] H. W. Chung,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ediated by Career Attitude Maturi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31, no. 1, pp. 95-115, 2014.
- [34] K. M.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s, Home Environment and Learning Behaviors for Pre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2006.
- [35] P. K. Coleman, and K. H. Karraker,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 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vol. 49, no. 1, pp. 13-24, 2000.
DOI: <http://dx.doi.org/10.1111/j.1741-3729.2000.00013.x>
- [36] H. M. Kim, H. S. Doh,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 25, no. 6, pp. 279-298, 2004.
- [37] S. H. Kim,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on Young Children's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5, no. 4, pp. 191-210, 2005.
- [38] M. R. Park,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Peer Competenc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2011.
- [39] H. J. Kim, and K. A. Jeo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parenting self-efficacy, verbal control style and child's peer interaction, ability to solve interpersonal problem",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 no. 4, pp. 273-299, 2011.
- [40] K. O. Seul, and H. J. Moon, "The Study of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Of Preschool Children, Parenting Self-Efficacy and Family Health of the Mother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 no. 1, pp. 23-40, 2011.
- [41] J. W. Lee, and J. W. Min, "An effect of matern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HOME) on follow-up planned childbirth",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14, no. 1, pp. 79-100, 2015.
- [42] M. Rutter,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147, pp. 598-611, 1985.
DOI: <http://dx.doi.org/10.1192/bjp.147.6.598>
- [43] J. Block, & J. H. Block,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vol. 61, no. 4, pp. 315-327, 2006.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61.4.315>
- [44] A. S. Masten, and J. D. Coatsworth,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favorable environments", *American Psychologist*, vol. 53, pp. 205-220, 1998.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53.2.205>
- [45] J. A. Naglieri, and P. A. LeBuffe, Measuring resilience in children. IN. S. Goldtein & R. B. Brooks(Ed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Spring Street, NY : Springer, 2006.
- [46] C. E. Waugh, R. J. Thompson, and I. H. Gotlib, "Flexible emotional responsiveness in trait resilience", *Emotion*, vol. 11, no. 5, pp. 1059-1067, 2011.
DOI: <http://dx.doi.org/10.1037/a0021786>
- [47] Y. H. Ko,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Young Children's Ego- Resiliency and its Related Variabl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2010.
- [48] S. M. Kang, The relation between the 3-year-ol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ir adjustment to kindergart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49] S. H. Ann, "A Study on Preschool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9, no. 1, pp. 201-219, 2002.
- [50] J. Y. Noh, Mother's and infant's communication sty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resiliency and peer competenc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achon University, 2014.
- [51] J. H. Block, &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2.349>

- [52] S. Goldstein, & R. B. Brook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New York: Springer, 2006.
- [53] K. H. Jung, and K. J. Won, "The Effect of Teaching Stress &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Children's Resilie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13, no. 1, pp. 281-297, 2009.
- [54] K. E. Kim, The effect of teacher-led group theraplay on ego resilience, peer competence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among full-day kindergarten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2013.
- [55] S. Y. Kuk,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f single-parent family on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of young childr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2013.
- [56] E. H. Je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Resilience of Young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8.
- [57] J. H. Sung, J. H. Baek. Validation of the echelle globale du sentiment de competence parentale (EGSCP)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4, no. 4, pp. 135-150, 2011.
- [58] P. A. LeBuffe, J. A. Naglieri. 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NC: Kaplan Press, 1999.
- [59] B. M. Kim, A study on protective factors affecting young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4.
- [60] Y. A. Park, and S. Y. Eo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hild-Care Center Adjustment Scale for Young Childre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0, pp. 33-53, 2012.
- [61] A. L. Jung, T. Maternal Self-efficacy and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Home Environ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2016.
- [62] J. M. Hong,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and School Adapt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6, no. 4, pp. 911-927, 2015.
- [63] Y. J. Lee and S. Y. Oh,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self-concept and their adjust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9, no. 1, pp. 343-362, 2014.

김 소 영(So-Young Kim)

[정회원]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중
- 2015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 시뮬레이션 교육, 간호행정

김 성 혁(Seong-Hyuk Kim)

[정회원]



- 1995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1985년 7월 ~ 1988년 2월 :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0년 4월 ~ 현재 : 다문화건강학회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위원
- 2015년 1월 ~ 현재 : 한국노인의료복지학회 이사 및 학회지 편집위원
- 1988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 성인간호, 노인보건

안 미 영(Mi-Young An)

[정회원]



- 2004년 9월 :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안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사회학과 (교육학석사)
- 2010년 6월 :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안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사회학과 (교육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사회교육, 학교폭력